

국내 대학원 석사학위취득자의 취업과 진로 실태

송창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I. 서론

□ 국가 간 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우수한 고급 인력의 양성과 활용이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로 등장함.

-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원 교육이 고급 인재양성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국내 석·박사학위취득자는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음.
 - 2000년 석·박사학위취득자 수는 53,379명에서 2015년 94,741명으로 약 77.5% 증가하였으며, 석사학위취득자 수는 47,226명에서 814,664명으로 72.9% 증가하였고, 박사학위취득자 수는 6,153명에서 13,077명으로 112.5% 증가하였음.

□ 본고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내신규석사조사(2015)를 이용하여 국내 신규 석사학위취득자의 취업 현황, 박사과정 진학 여부, 해외 이주 등 학위취득 후 진로를 파악하고자 함.

- 분석 대상은 2015년 8월 석사학위취득자로 응답자 9,783명임(외국인 석사학위취득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 국내 신규 석·박사학위취득자조사(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92009)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연 2회 국내 신규 석사와 박사학위취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석·박사학위취득자의 학업 과정 및 취업상태, 향후 진로 등을 조사

II. 분석 대상의 기본 특성

- 응답자 9,783명(2015년 8월 석사학위취득자)의 기본 특성을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 45.2%, 여성 54.8%로 성별 비율은 여성이 9.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40.1%, 30~39세 미만 37.0%, 40~49세 미만 15.5%, 50세 이상 7.4%로 40세 미만 석사학위취득자 비율은 전체의 77.1%를 차지함.
 - 대학원 유형별로는 일반대학원 57.5%, 전문대학원 6.6%, 특수대학원 35.9%로 일반대학원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특수대학원의 비율 또한 일반대학원의 62%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 61.0%, 비수도권 39.0%로 수도권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이 21.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계열 21.4%, 교육(사범)계열 16.7%, 예술/체육계열 12.9%, 인문계열 9.8%, 자연계열 9.7%, 의약계열 7.7% 순임.

표 1. 응답자의 기본 특성

(단위: 명, %, 세)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체		9,783	100.0	대학원 유형	일반	5,620	57.5
성별	남성	4,419	45.2		전문	650	6.6
	여성	5,364	54.8		특수	3,511	35.9
직장여부	학업전념	4,938	50.9	지역	수도권	5,971	61.0
	직장병행	4,757	49.1		비수도권	3,811	39.0
연령	30세 미만	3,915	40.1	전공 계열	인문	952	9.8
	30~39세	3,616	37.0		사회	2,082	21.4
	40~49세	1,514	15.5		공학	2,120	21.8
	50세 이상	723	7.4		자연	942	9.7
	평균	34.2			의약	753	7.7
					교육(사범)	1,624	16.7
				예술/체육	1,255	12.9	

Ⅲ. 취업 현황

□ 전체 응답자 중 취업자 비율은 54.2%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업전념자 중 취업자 비율은 24.6%에 불과함.

- 국내 신규 석사학위취득자 9,783명 중 취업자 비율은 54.2%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 58.1%, 여성 51.1%로 남성 취업자 비율이 7%p 높음.
 - 학업전념자 중 취업자의 비율은 24.6%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40~49세 미만이 83.2%로 가장 높은 취업자 비율을 보였으며, 50세 이상 78.1%, 30~39세 미만 61.6%, 30세 미만 31.9%로 나타남.
 - 대학원 유형별로는 특수대학원 취업자 비율이 7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원 59.7%, 일반대학원 41.9%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 50.1%, 비수도권 60.8%로 수도권 소재 대학의 석사학위취득자 취업자 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10.7%p 낮게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는 의약계열이 79.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사범)계열 64.0%, 사회계열 63.3%, 예술/체육계열 48.3%, 인문계열 47.4%, 공학계열 43.2%, 자연계열 37.3%의 순으로 이공계열 취업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취업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체		5,307	54.2	대학원 유형	일반	2,353	41.9
성별	남성	2,568	58.1		전문	388	59.7
	여성	2,739	51.1		특수	2,565	73.1
직장여부	학업전념	1,215	24.6	지역	수도권	2,990	50.1
	직장병행	4,051	85.2		비수도권	2,316	60.8

〈표 계속〉

연령	30세 미만	1,248	31.9	전공 계열	인문	451	47.4
					사회	1,318	63.3
	30~39세	2,227	61.6		공학	916	43.2
					자연	351	37.3
	40~49세	1,260	83.2		의약	595	79.0
					교육(사범)	1,039	64.0
	50세 이상	565	78.1		예술/체육	606	48.3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취업자의 89.1%가 임금근로자로 나타나고, 이 중 81.5%가 상용직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88.8%, 이들 중 상용직이 88.4%로 대부분이 상용직인 반면, 여성은 임금근로자 89.4% 중 상용직이 75.1%, 임시직이 23.4%로 임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직장여부별로는 학업전념자의 경우 취업자 중 94.9%가 임금근로자이며, 이들 중 상용직이 70.1%, 임시직이 28.1%로 직장병행자의 상용직 비율(85.2%)보다 낮고 임시직 비율(14.0%)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 유형별로는 일반대학원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91.4%로 전문대학원(88.0%), 특수대학원(87.1%)에 비해 가장 높지만 상용직 비율은 일반대학원 77.9%로 전문대학원(81.6%) 및 특수대학원(84.9%)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95.4%로 가장 높고, 상용직 비율도 공학계열이 9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예술/체육계열의 임금근로자 비율(75.8%) 및 상용직 비율(64.2%)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3.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직장여부		대학원 유형			전공계열						
	빈도	비율	남	여	학업 전념	직장 병행	일반	전문	특수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의약	교육	예술/ 체육
전체	9,5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자	5,211	54.7	58.6	51.5	24.6	86.0	42.0	60.2	74.3	47.7	63.9	43.5	37.2	79.4	65.0	48.6
임금근로자	4,644	89.1	88.8	89.4	94.9	87.4	91.4	88.0	87.1	86.5	88.0	95.4	91.3	93.0	91.0	75.8
상용직	3,785	81.5	88.4	75.1	70.1	85.2	77.9	81.6	84.9	70.9	86.4	91.2	76.0	83.0	80.3	64.2
임시직	812	17.5	11.1	23.4	28.1	14.0	20.9	16.6	14.3	26.5	13.1	8.2	23.6	16.3	19.5	31.5
일용직	47	1.0	0.5	1.5	1.8	0.8	1.2	1.8	0.7	2.6	0.5	0.6	0.3	0.7	0.2	4.3
비임금근로자	567	10.9	11.2	10.6	5.1	12.6	8.6	12.0	12.9	13.5	12.0	4.6	8.7	7.0	9.0	24.2
고용주	345	60.8	68.8	53.0	39.3	63.3	59.1	58.7	62.2	42.4	67.7	71.4	50.0	73.2	71.7	49.0
자영자	202	35.6	29.1	42.1	47.5	34.3	37.4	37.0	34.4	49.2	27.7	26.2	46.7	26.8	26.1	49.0
무급 가족 종사자	20	3.5	2.1	4.9	13.1	2.4	3.5	4.3	3.4	8.5	4.5	2.4	3.3	0.0	2.2	2.1
미취업자	4,318	45.3	41.4	48.5	75.4	14.0	58.0	39.8	25.7	52.3	36.1	56.5	62.8	20.6	35.0	51.4

주: 비율 계산 시 종사상 지위 문항에 대한 결측치를 제외하여 실제 취업자 비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취업자의 직장 종류를 살펴보면, 민간기업이 27.2%로 가장 많은 석사학위취득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민간기업이 3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는 초·중·고가 21.2%로 가장 많은 석사학위취득자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의 경우 민간기업 취업자가 61.5%로 절반 이상이 민간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약 및 교육 계열의 경우 각 계열의 특성상 병원 및 의료기관과 초·중·고에 절반 이상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취업자의 직장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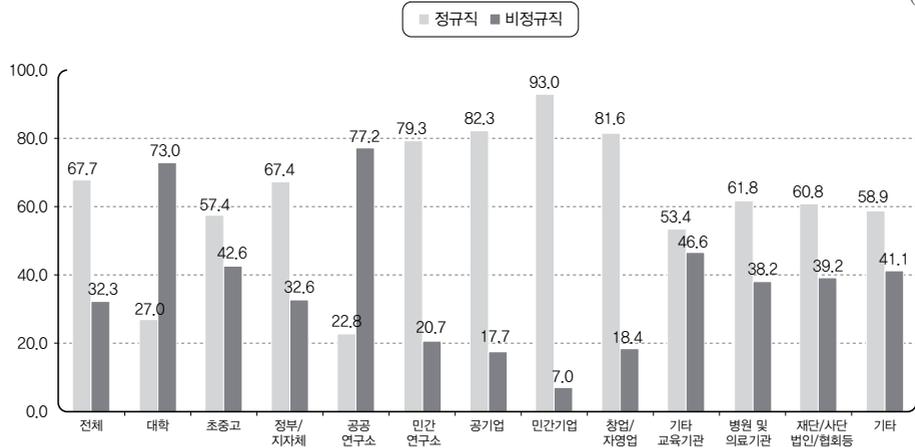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학	초중고	정부/ 지자체	공공 연구소	민간 연구소	공기업	민간 기업	창업/ 자영업	기타 교육 기관	병원 및 의료기관	재단/ 사단법인, 협회 등	기타
전체	빈도	4,626	6.6	15.0	9.5	3.7	2.4	5.8	27.2	1.9	5.1	11.6	5.7	5.6
성별	남	2,237	4.7	8.4	10.3	3.8	3.2	7.9	38.2	2.7	1.7	9.0	4.5	5.6
	여	2,389	8.3	21.2	8.7	3.6	1.6	3.7	16.8	1.1	8.4	14.1	6.9	5.5
직장 여부	학업 전념	1,126	10.7	6.7	5.1	8.7	5.7	6.0	38.5	2.7	4.3	3.5	3.6	4.7
	직장 병행	3,472	5.2	17.7	10.9	2.1	1.4	5.7	23.6	1.6	5.4	14.3	6.3	5.8
대학원 유형	일반	2,104	8.0	5.8	7.4	5.9	4.2	5.1	31.6	2.0	3.7	17.0	4.5	4.9
	전문	335	3.6	11.6	8.1	4.5	1.5	14.6	29.9	1.8	4.8	5.7	5.1	9.0
	특수	2,186	5.7	24.5	11.7	1.5	0.8	5.0	22.4	1.8	6.6	7.4	7.0	5.7
전공 계열	인문	377	11.4	7.2	13.8	2.4	2.7	2.9	17.0	1.3	6.1	4.5	11.7	19.1
	사회	1,136	5.5	4.0	17.7	4.4	1.5	12.1	29.6	1.5	2.8	3.6	10.5	6.9
	공학	858	3.0	0.1	6.1	6.5	6.8	7.6	61.5	2.2	0.5	1.0	1.9	2.8
	자연	314	10.2	2.9	7.0	11.1	4.1	4.1	29.3	2.9	4.1	18.2	2.5	3.5
	의약	546	6.8	1.3	4.6	1.1	1.3	1.5	6.4	0.4	1.8	70.3	2.4	2.2
	교육	924	6.2	59.2	5.0	1.2	0.3	1.3	6.8	0.6	11.5	1.1	3.7	3.1
	예술/ 체육	448	10.0	12.5	8.3	0.9	0.4	4.2	29.7	6.5	10.7	3.6	6.3	6.9

- 취업자의 직장 종류별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면 정규직 67.7%, 비정규직 32.3%로 정규직 비율이 비정규직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민간연구소, 공기업, 민간기업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각각 79.3%, 82.3%, 93.0%로 대부분이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직장 종류별 일자리 유형

(단위: %)



- 업무와 전공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매우 높음이 47.9%, 다소 높음이 35.0%로 80% 이상이 업무와 전공 간의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함.
 - 성별 및 직장여부별, 지역별 업무와 전공 간의 관련성에서 모두 80% 이상이 업무와 전공 간의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 유형별로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 80% 이상이 업무와 전공 간의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나, 전문대학원에서는 78.6%로 다소 낮은 비율을 보임.
 - 전공계열별로는 인문(78.5%) 및 사회(75.2%) 계열에서만 업무와 전공 간의 관련성이 8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계열에서는 80% 이상이 업무와 전공 간의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함.

표 5. 업무-전공 간 관련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매우 낮음	다소 낮음	다소 높음	매우 높음	구분	빈도	매우 낮음	다소 낮음	다소 높음	매우 높음	
전체		5,185	4.9	12.2	35.0	47.9	대학원 유형	일반	2,309	3.5	11.1	33.5	51.9
성별	남성	2,520	4.7	11.7	36.2	47.3		전문	383	5.7	15.7	35.8	42.8
	여성	2,665	5.1	12.6	33.9	48.5		특수	2,492	6.1	12.6	36.4	45.0
직장 여부	학업전념	1,188	3.6	13.0	36.8	46.6	지역	수도권	2,923	4.4	11.8	34.7	49.1
	직장병행	3,970	5.3	11.8	34.5	48.3		비수도권	2,262	5.5	12.7	35.5	46.3
연령	30세 미만	1,205	4.1	12.7	35.5	47.6	전공 계열	인문	438	8.4	13.0	31.5	47.0
	30~39세	2,187	4.1	12.7	33.5	49.8		사회	1,296	5.6	19.1	40.2	35.0
	40~49세	1,231	5.6	10.6	36.6	47.3		공학	909	3.4	9.2	40.0	47.3
								자연	341	2.9	11.4	34.3	51.3
	50세 이상	555	8.1	12.8	36.8	42.3		의약	583	2.1	5.3	29.2	63.5
								교육(사범)	1,002	5.2	9.0	29.2	56.6
						예술/체육	585	6.3	13.5	34.4	45.8		

□ 미취업자

- 미취업자들이 선호하는 직장 유형은 대학(19.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업(17.2%), 공공연구소(16.3%)의 순으로 대학 및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선호 직장이 공공연구소(20.6%), 공기업(20.5%), 대학(17.1%)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는 대학(21.0%), 초·중·고(15.7%), 공기업(14.9%)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전념자 중 미취업자의 선호 직장이 공공연구소(20.3%), 공기업(20.1%), 대학(16.8%)의 순으로 나타남.
 - 대학원 유형별로는 일반 및 전문대학원은 대학, 공공연구소, 공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특수대학원은 초·중·고(30.3%), 대학(21.4%)으로 절반 이상이 학교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는 인문 및 사회 계열은 대학, 정부/지자체, 공공연구소 취업을 선호하는 것

패널 브리프

으로 나타났으며 공학 및 자연계열은 공공연구소, 공기업, 정부/지자체, 민간기업, 교육 및 예술/체육계열은 대학 및 초·중·고에 취업하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미취업자의 선호 직장 유형(1순위)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학	초중고	정부/ 지자체	공공 연구소	민간 연구소	공기업	민간 기업	창업/ 자영업	기타 교육 기관	병원 및 의료기관	재단/ 사단 법인 협회 등	기타	
														빈도
전체	빈도	4,565	884	531	469	744	120	787	490	139	93	144	91	73
	(비율)	(100.0)	(19.4)	(11.6)	(10.3)	(16.3)	(2.6)	(17.2)	(10.7)	(3.0)	(2.0)	(3.2)	(2.0)	(1.6)
성별	남	1,904	17.1	6.0	8.6	20.6	3.9	20.5	14.3	3.6	0.7	2.0	1.4	1.3
	여	2,661	21.0	15.7	11.5	13.2	1.7	14.9	8.2	2.7	3.0	4.0	2.4	1.8
직장 여부	학업 전념	2,877	16.8	7.3	8.8	20.3	3.6	20.1	13.9	2.1	1.8	2.1	1.8	1.4
	직장 병행	1,653	24.0	18.9	12.8	9.1	1.0	12.5	5.3	4.7	2.5	5.0	2.4	1.8
대학원 유형	일반	2,860	18.3	3.3	9.8	21.2	3.5	20.1	13.4	2.4	1.6	3.6	1.6	1.2
	전문	310	20.0	4.5	13.9	17.4	1.6	19.0	11.6	2.9	1.9	0.6	2.9	3.5
	특수	1,394	21.4	30.3	10.5	6.1	1.0	11.0	5.0	4.4	2.9	2.8	2.6	2.0
전공 계열	인문	447	34.2	5.4	15.4	12.5	1.8	8.9	5.4	3.1	4.3	1.8	4.0	3.1
	사회	886	18.6	4.0	17.2	13.9	1.4	19.8	11.2	4.6	1.1	2.7	3.4	2.3
	공학	1,104	7.0	0.3	6.5	31.4	5.9	26.4	19.3	1.4	0.2	0.4	0.5	0.8
	자연	515	10.9	2.3	12.6	27.0	4.3	24.5	11.8	1.0	1.0	4.1	0.6	0.0
	의약	254	28.0	4.3	9.1	8.3	1.2	11.8	6.3	3.1	1.6	25.6	0.8	0.0
	교육	691	18.4	53.1	5.9	4.3	0.7	6.1	2.3	1.6	4.2	1.3	1.3	0.7
	예술/ 체육	650	35.7	11.8	6.6	4.2	0.8	12.0	9.4	6.8	3.5	1.8	3.7	3.7

- 미취업자들의 직장 선택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전공 관련성(33.5%)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직장여부별, 대학원 유형별, 전공계열별로 미취업자들의 직장 선택 시 고려사항을 살펴본 결과, 70% 이상이 전공 관련성, 고용 안정성, 보수 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직장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명, %)

구분		전체	보수 수준	고용 안정성	전공 관련성	직장 잠재성	사회적 명예	직장의 지역적 위치	직장 내 조직문화	기타
전체	빈도	4,520	708	1,189	1,514	640	96	104	137	132
	(비율)	(100.0)	(15.7)	(26.3)	(33.5)	(14.2)	(2.1)	(2.3)	(3.0)	(2.9)
성별	남	1,887	18.4	25.8	29.6	16.5	2.0	2.1	3.3	2.3
	여	2,633	13.7	26.7	36.3	12.5	2.2	2.4	2.8	3.3
직장 여부	학업 전념	2,858	14.2	24.4	36.9	14.2	1.7	2.8	3.0	2.8
	직장 병행	1,636	18.3	29.7	27.6	14.0	2.8	1.4	3.2	2.9
대학원 유형	일반	2,836	16.1	25.0	33.8	14.9	1.7	2.9	3.1	2.5
	전문	310	13.5	23.2	37.1	13.5	1.6	1.9	3.2	5.8
	특수	1,373	15.2	29.8	32.0	12.7	3.1	1.2	2.8	3.2
전공 계열	인문	443	11.7	24.4	44.2	8.4	1.4	2.9	2.7	4.3
	사회	881	14.4	25.3	31.8	16.5	3.1	1.5	4.4	3.1
	공학	1,098	18.7	27.1	26.0	17.2	0.9	3.2	4.6	2.4
	자연	509	18.3	27.9	29.7	14.9	0.8	4.5	1.2	2.8
	의약	249	16.5	27.3	29.7	15.3	2.4	3.2	2.8	2.8
	교육	678	12.1	33.3	37.3	9.7	1.9	1.0	2.2	2.4
	예술/체육	647	16.1	18.2	41.9	13.8	4.6	0.8	1.2	3.4

- 미취업자들의 희망 연봉을 살펴보면 3,000~4,000만 원 미만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2,000~3,000만 원 미만 20.2%, 4,000~5,000만 원 미만 19.1%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61.2%가 3,000~5,000만 원 미만을, 여성의 경우 69.6%가 2,000~4,000만 원 미만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업전념자의 경우 67.5%가 2,000~4,000만 원 미만을, 직장병행자의 경우 50.1%가 3,000~5,000만 원 미만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 유형별로는 일반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 각각 62.7%, 56.1%가 2,000~4,000만 원 미만을, 전문대학원의 경우 62.5%가 3,000~5,000만 원 미만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패널 브리프

- 전공계열별로는 인문, 자연, 교육 및 예술/체육계열의 경우 각각 70.8%, 72.5%, 69.8%, 60.2%가 2,000~4,000만 원 미만을 사회, 공학 및 의약 계열의 경우 각각 57.3% 69.8%, 44.4%가 3,000~5,000만 원 미만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의약계열의 경우 타 계열과는 달리 희망 연봉이 1억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6.8%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8. 희망 연봉

(단위: 명, %)

구분		전체	2,000만 원 미만	2,000~3,000만 원 미만	3,000~4,000만 원 미만	4,000~5,000만 원 미만	5,000~6,000만 원 미만	6,000~7,000만 원 미만	7,000~8,000만 원 미만	8,000~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전체	빈도	4,509	59	913	1,804	862	338	137	92	95	209
	(비율)	(100.0)	(1.3)	(20.2)	(40.0)	(19.1)	(7.5)	(3.0)	(2.0)	(2.1)	(4.6)
성별	남	1,882	1.0	10.9	36.3	24.9	9.1	4.1	3.0	3.1	7.5
	여	2,627	1.6	26.9	42.7	15.0	6.3	2.3	1.4	1.4	2.6
직장 여부	학업 전념	2,849	1.3	22.0	45.5	19.0	6.1	1.9	0.9	0.9	2.4
	직장 병행	1,635	1.2	17.2	30.6	19.5	9.8	5.1	4.1	4.2	8.3
대학원 유형	일반	2,824	0.9	19.8	42.9	19.7	7.2	2.3	1.4	1.7	4.2
	전문	307	1.3	15.0	41.0	21.5	7.2	4.6	3.6	2.0	3.9
	특수	1,377	2.1	22.3	33.8	17.4	8.3	4.3	3.1	3.1	5.7
전공 계열	인문	435	2.1	32.9	37.9	13.1	6.7	1.6	1.4	1.4	3.0
	사회	882	1.1	20.2	37.0	20.3	7.1	3.6	3.2	2.8	4.6
	공학	1,095	0.8	8.1	44.0	25.8	9.6	3.8	2.0	1.7	4.0
	자연	508	0.8	20.3	52.2	17.1	5.7	1.0	1.4	0.2	1.4
	의약	250	1.2	11.2	26.4	18.0	9.6	6.8	3.2	6.8	16.8
	교육	677	1.6	30.7	39.1	17.0	4.1	2.4	1.3	1.0	2.7
	예술/체육	646	2.0	24.8	35.4	14.4	9.1	2.6	1.9	2.9	6.8

IV. 박사과정 진학

□ 박사과정 진학 계획

- 박사과정 진학 확정 또는 계획 중인 석사학위취득자 비율은 55.9%임.
 - 성별, 직장여부별, 연령별, 대학원 유형별, 지역별 석사학위취득자의 박사과정 확정 또는 계획 중인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전공계열별로는 공학 및 교육(사범)계열의 석사학위취득자의 박사과정 진학 확정 또는 계획 중인 비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인문계열의 경우 타 계열에 비해 가장 높은 71.7%가 박사과정 진학을 확정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박사과정 진학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확정	계획 중	해당 없음	구분	빈도	확정	계획 중	해당 없음		
전체	5,123	13.9	42.0	44.1	대학원 유형	일반	3,035	19.8	36.6	43.6	
성별	남성	2,503	15.8	40.8		43.4	전문	424	7.8	44.6	47.6
	여성	2,620	12.0	43.2		44.7	특수	1,663	4.7	51.2	44.1
직장 여부	학업전념	2,551	21.4	32.8	45.8	지역	수도권	3,189	12.5	42.0	45.6
	직장병행	2,557	6.4	51.0	42.6		비수도권	1,934	16.2	42.1	41.7
연령	30세 미만	1,965	20.4	33.1	46.5	전공 계열	인문	536	21.1	50.6	28.4
	30~39세	1,902	11.3	44.1	44.7		사회	1,140	10.8	50.6	38.6
	40~49세	846	6.6	53.7	39.7		공학	1,217	18.5	25.6	55.9
	50세 이상	397	9.8	51.9	38.3		자연	491	23.0	33.8	43.2
							의약	434	10.1	49.1	40.8
					교육(사범)		717	7.0	41.8	51.2	
					예술/체육	573	7.5	52.2	40.3		

- 박사과정 진학 확정 또는 계획 중인 석사학위취득자 중 84.2%가 국내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패널 브리프

- 직장여부별로는 학업전념자의 경우 국내 75.4%, 해외 24.6%로 직장병행자(국내 92.9%, 해외 7.1%)에 비해 해외로의 박사과정 진학을 확정 또는 계획하고 있는 석사학위취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의 국내 박사과정 진학 비율이 75.4%, 50세 이상에서는 98.5%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국내에서 박사과정 진학을 확정 또는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 유형별로는 해외로 박사과정 진학을 확정(또는 계획)한 석사학위취득자가 일반대학원 19.8%, 전문대학원 21.2%, 특수대학원 6.9%로 전문대학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해외로 박사과정 진학을 확정(또는 계획)한 석사학위취득자가 수도권 21.4%, 비수도권 7.1%로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의 해외 진학 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의 경우 해외로의 박사과정 진학을 확정(또는 계획)한 석사학위취득자가 20.4%로 가장 많으며, 의약계열이 7.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박사과정 진학을 해외로 할 계획인 석사학위취득자의 경우 51.9%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직장·연구 경험을 쌓은 후 돌아올 예정이라고 응답함.
 - 전공계열별 해외로의 박사과정 진학을 확정(또는 계획)한 석사학위취득자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박사과정을 마치고 직장·연구 경험을 쌓은 후 돌아올 예정이라고 응답했지만, 의약 및 교육(사범) 계열 석사학위취득자의 경우 박사과정을 마친 후 돌아올 예정이 각각 38.9%, 4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 박사과정 국가

(단위: 명, %)

구분	빈도	국내	해외					구분	빈도	국내	해외							
				1	2	3	4					1	2	3	4			
전체	2,706	84.2	15.8	31.1	51.9	1.2	15.9											
성별	남성	1,350	85.5	14.5	29.6	52.6	1.0	16.8	대학원 유형	일반	1,638	80.2	19.8	29.3	54.0	0.9	15.7	
		여성	1,356	82.9	17.1	32.3	51.3	1.3		15.1	전문	212	78.8	21.2	35.6	51.1	2.2	11.1
											특수	855	93.1	6.9	37.3	40.7	1.7	20.3
직장 여부	학업 전념	1,331	75.4	24.6	29.6	54.6	0.9	14.9	지역	수도권	1,657	78.6	21.4	32.2	51.7	1.1	15.0	
	직장 병행	1,365	92.9	7.1	37.1	41.2	2.1	19.6		비수 도권	1,049	92.9	7.1	25.7	52.7	1.4	20.3	
연령	30세 미만	1,021	75.4	24.6	30.3	54.6	0.8	14.3	전공 계열	인문	353	79.6	20.4	41.7	47.2	1.4	9.7	
	30~ 39세	1,009	84.5	15.5	30.8	48.1	1.3	19.9		사회	658	80.4	19.6	28.7	58.9	2.3	10.1	
	40~ 49세	465	96.1	3.9	38.9	55.6	0.0	5.6		공학	526	83.3	16.7	17.0	58.0	0.0	25.0	
	50세 이상	206	98.5	1.5	66.7	0.0	33.3	0.0		자연	270	84.4	15.6	21.4	52.4	0.0	26.2	
										의약	247	92.7	7.3	38.9	27.8	0.0	33.3	
								교육 (사범)	326	89.3	10.7	45.7	34.3	0.0	20.0			
								예술/ 체육	315	86.3	13.7	44.2	48.8	2.3	4.7			

주: 1) 박사과정을 마친 후 돌아올 예정
 2) 박사과정을 마치고 직장·연구 경험을 쌓은 후 돌아올 예정
 3) 한국에서 취업이 되면 바로(박사과정이 끝나지 않더라도) 돌아올 예정
 4) 해외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

V. 요약 및 결론

- 국내 석사학위취득자의 교육환경, 노동시장 진입 현황, 진로 계획 등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석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진로 현황을 살펴보았음.
- 국내 석사학위취득자의 진로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은 54.2%로 나타남.
- 국내 석사학위취득자 중 학업에만 전념한 학업전념 졸업자의 진로실태를 보면 학업전념자의 취업 비율은 24.6%로 매우 저조했으며, 학업전념자의 21.4%가 박사과정 진학 확정, 32.8%가 계획 중으로 나타났음.

패널 브리프

- 미취업자의 선호 직장을 살펴본 결과 대학, 초·중·고, 공기업, 공공연구소에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음.
 - 취업자들의 직장 종류별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면,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미취업자의 선호 직장과 실제 취업자들의 고용의 질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사람이 희망입니다.